

욕심없는 삶



이주연 한전KDN(주)/이사

가 을치고는 매서운 날씨가.
이름하여 북한산은 북쪽에 있어 추위가 더 빨리 오
나?

틈나는 대로 산을 찾으려 애를 쓰지만 기실 집을 나설
때는 뭉그적거린다.

“에라! 오늘은 좀 설까?”

게으름 피우며 휴일을 방바닥에 나 뒹굴면 오히려 쉬
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기분 짹짹 몸은 찌뿌둥해진다.

날씨 추우니 나서기 싫고 몸 컨디션이 별로이니 가기
싫고 만나는 장소가 지하철로 이동하는데 한 시간 넘어 걸
리니 가기 싫어 이 핑계 저 핑계로 단체 산행은 뒤로 빼는
성미다.

유년시절 산에 올라 조선낫을 들고 송진 냄새 그득한
솔가지를 몰래 잘라내어 움푹 파인 골짜기에 숨겨 놓고 마
를 때까지 기다렸다 가져왔던 그런 산이 사실은 싫었다.

농사꾼의 자식이 차가 뽕뽕 떠다니는 서울 바닥에서

약력 : •75~93 한국전력 •현재 한전KDN(주) 이사

봉황인척 하며 살아 온지 20여년!

바람에 역세 부대끼듯 이리저리 부대끼며 살아온 시간들이 볼테기가 합죽하게 들어간 초로의 촌사람으로 되돌아간다.

젊음은 안 가꾸어도 찬란하고 촌티를 벗어나는데 이젠 본색이 드러날 때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욕심을 버리지 못해 거드름 피우며 마치 자신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처럼 거들먹거리며 살아왔다.

감투가 욕심나서 長자리에 걸눈질하고 남들 다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싶어 주택청약 들기 수십 번에 당첨한번 못 되어본 재수 옴 붙은 삶!

물욕, 성욕, 오욕을 마다않고 더 갖고자 아귀다툼에 나를 방해한 자는 경쟁자이고 적이라는 치졸한 머리 굴림!

상대를 미워하고 뒤통수를 까대며 밟아 눌러 올라서려는 끝없는 욕심들!

언제부터인가 산에 정을 붙이고 찾기 시작했다.

내가 혼자 산을 찾는 이유는 거추장스럽지 않게 혼자 생각하고 혼자 흠어진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함이다.

더 큰 이유는 가쁜 호흡 헉헉대며 말대꾸하기가 귀찮아서이다.

온갖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실타래 풀리듯 풀려 나오며 잘못된일 용서할일 사과할일을 떠올리며 잠시나마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흔히 산을 찾는 사람이 악인이 없다는 얘기는 아마 틀린 말이 아님은 분명하다.

큰 산이건 작은 산이건 정상에 오르면 해 났다는 성취감으로 가슴이 뿌듯하고 열린 마음이 되어 하잘것없는 속세의 욕심들에 관대해지기 때문이다.

산사나이가 오가는 사람을 만나면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산처녀가 순박한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싶다.

북한산 능선을 넘어 그늘진 옆구리로 돌아가니 벌써 철 이른 겨울이 벌써 와 있었다.

이미 퇴색한 단풍 몇 잎이 걸린 빈 나뭇가지들이 마음을 바쁘게 한다.

비봉을 바라보며 올라갈까 돌아갈까 요리 기웃 저리 기웃 마치 초가집 지붕 쳐다보는 수탉처럼 망설이며 마음의 갈등을 느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봉을 옆에 놓고 돌아간다.

자신 있게 다가가서 힘들이지 않고 스파이더맨 처럼 바위를 타고 넘는 남자들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정복하리라 마음을 다잡았다.

저 바위를 타고 넘어야 훗날 북한산에 대한 기억이 확실하게 자리하리라.

큰 호흡 들이쉬고 보무도 당당히 두어 발 다가갔다가 ‘에이! 만용이지!’ 스스로 포기하며 다시 쳐다보니 세찬 바람에 비봉이 흔들거리는 듯하다.

이번에는 여자 등산객 두엇이 비봉을 향해 가볍게 걸

어간다.

각아지른 절벽을 아슬아슬하게 버티며 올라간다.

뒤따르던 남자들이 등산화를 받쳐주고 급기야 힘을 밀어 올려 간신히 비봉을 넘어간다.

‘에이! 어디라고 남의 여자 힘을 만지나?’

난 자존심이 완전히 구겨져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졌다.

다시 한번 용기를 갖고 자신 있게 다가가 한발을 떼고 밭을 본 순간 긴장이 되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날 듯하다.

아예 포기하고 옆길로 돌아가며 비봉을 쳐다보니 ‘용용 죽겠지?’ 나를 놀리는 듯하다.

풀 죽은 심사를 떨쳐버리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 지니 북한산이 나에게 속삭인다.

‘욕심 적게 부리고 나누어주고 살면 되지 속세의 욕심을 산에서도 부리려드느고?’

‘그렇다. 모든 최악의 근원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을!’

난 자존심 상할 이유 없는 가치 없는 일에 잠시 실랑이를 벌였던 마음을 접고 허허로이 마음 비우고 웃고 걸어가니 대남문에 모인사람 너나없이 勝者였고 王이 되었더라.